

푸른 너에게 마음으로 한대

한양대학교 류근 교수의 칼럼 모음집

제자이면서도 후배인 한양대학교 학생들에게

푸른 너에게 마음으로 한대

한양대학교 류근 교수의 칼럼 모음집

몇 해 동안 쌓인 글을 하나씩 모아보았다.

앞으로 더 채워나가련다.

다 채워지면 몇 페이지가 될 지 모르겠다.

글을 쓸 때마다 늘 마지막일 것 같은 마음으로 쓴다.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꼭 해야 할 것 같은 말을 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여러 모양으로 바꾸어 쓰는 것 같다.

그래도 쓰면서 배워 가련다..

글쓴이 류근

Email: kryu@hanyang.ac.kr

Web: <http://turbolab.hanyang.ac.kr>

공대 교수가 쓴
공학과
관계없는 글들

늘 정리해야만 속이
시원한 공대 교수 류근

냉철한 이성의 현실주의? 완전함을 향한 불완전함의 인식

2015년 11월 9일 한대신문 수록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학생들의 질문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느냐?"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그 자체가 가지는 정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해 주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의 한계 또한 그 질문이 가지는 한계와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최근 우리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로부터 취업과 '성공'에 대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현실과 타협하며 경제 논리와 강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당연시 여기는 냉철한 현실주의와 철저한 인본주의가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습과 경험, 지식을 통해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결단을 하고, 결단력 있게 일을 추진하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배워 왔다. (사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내'가 가지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이나 지식에 대한 열망은,

치열한 입시와 그 이후의 대학 생활을 통해 '남들보다', 혹은 '남들만큼'이라는 색으로 덧입혀 지게 되지 오래다.

몇 해 전 미국 밴더빌트대학의 한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객관적 판단을 할 때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것 같지만, 정작 우리 뇌는 자신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되는 논쟁을 할 때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결정을 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냉철함'은 무엇일까?

과학의 역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 아이작 뉴턴은 힘과 질량(관성),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를 풀어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대의 문명을 누리기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첨단기계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에 사용되는 고체와 유체의 거동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핵심 이론이다. 이런 뉴턴은 그의 저서에서 "수학적이며 진리적인 절대시간은 외부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것 자체로 흐른다."라고 하였고, 이러한 그의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이 시간을 이해하는 틀로 여겨졌다. 그러나, 20 세기에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상대성을 제시하고 증명함으로써, 뉴턴의 믿음의 틀이 가진 한계를 정면으로 깨뜨렸다.

오늘날 대학과 사회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방향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무엇이 가슴을 그토록 뜨겁게 하며, 무엇이 심장을 그토록 뛰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의 스펙트럼이 가지는 한계를 알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그 무언가에 대해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냉정함은 어쩌면 우리가 현재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주입 받고 있는 "성장"이라는 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냉정함이 가지는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움을 찾는 것이 "성숙"이 아닐까? 성장만 강요하는 대학과 사회 속에서, 성숙을 향해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왜? 진짜 왜?

2016년 9월 26일 한대신문 수록

“OO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OO 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OO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거나 조언을 듣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교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는 돌직구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 그런데 대부분 나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 보인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열심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질문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니, 진짜 왜?” 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의 이 질문은 질문자의 질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다른 것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사실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하는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명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연봉을 받는 자리에 있느냐는 우리가 ‘성공’한 청춘을 보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여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성공했다고 바라보는 기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솔직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성공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켰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여기고 있음을 대부분의 우리는 부인 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느낀다. 우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육체와 마음의 '피'와 '상처'를 감내하며 청춘의 시절을 보낼지 모른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나 자신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2014 년 2 학기에 학부 2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수업을 담당하며 수강생 110 여 명을 대상으로 나의 강의에 대한 진행방법과 개선방향을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 때 마지막 질문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왜 공부하는지 안다/모른다”라는 항목을 넣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모른다”를 선택한 학생이 놀랍게도 60% 정도였다! (나는 여기서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이나 개인적 환경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나의 질문과 궁극적으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논하지 않으려 한다.)

무엇이 여러분 각자를 정의하고, 무엇이 여러분 각자의 진짜 정체성인가? 직장과 직위, 연봉, 명성, 꿈의 성취는 여러분을 정의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행복의 “충만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의 이런 사회적 성취와 관계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자체로 충분하며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이유이다.

삶의 높낮이를 살아가고 ‘살아내는’ 과정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이다. 한 살 전후의 어린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모양의 블록을 그 모양과 똑같이 생긴 빈 공간에 찾아 넣는 것이 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공”이라는 블록을 결코 맞춰 넣을 수 없는 ‘행복’이라는 모양의 빈 공간에 억지로 넣으려고 한다. 대부분 20 대인 우리 학생들은 선택할 것, 결정할 것, 해야 할 것이 참 많다. 이런 것들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강박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태어나면서 시작한 우리 인생의 열차에서, 언제 어느 역에서 어떻게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열차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과 관계 없이 내 인생의 '한양대학교'역에서 만난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한다.

그래도 괜찮아

2017년 5월 15일 한대신문 수록

대부분의 남자들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군대 이야기다. 98년 8월에 입대하여 “짧은” 26개월의 현역생활을 하였던 나는, 같이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미국에서 유학할 때의 이야기이다. 내 유학 생활을 돌이켜 보면, 눈물과 실패, 좌절과 낙망으로 얼룩진 자아를 부여잡고 하루하루 버텨온 날들이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으로는 그 이야기를 풀어낼 수도 없는, 그리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계속되는 좌절과 시험 실패의 경험들을, 이제 나는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그렇게도 부끄러웠는데도 말이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거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돌이켜보니,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한가운데 한참 동안 서 있어 본 사람만이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안다. 내일의 나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루하루, 나 자신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그 처절함이 삶에 대한 철학과 나를 바꾸었다.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나의 일상과 삶에 대한 태도를 모두 바꾸었다.

그렇게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결과와 관계없이,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였던 일을 위해 노력하였던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기간이었다. 내가 꿈꾸던 그것이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좌절로 돌아오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던 시간들이야말로 진짜 나의 꿈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삶에 대한 지혜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기는 것과 같이,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보지 못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삶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평소에 나를 그리도 얽어매고 내 열정과 시간을 바치는 문제들보다,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더욱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은, 남겨진 선택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낀 절실한 사람은 깨닫게 된다.

예전에 '1 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개그 유행어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 사실 세상이 그런든 아니든 별 상관없다. 후배이자 제자인 한양대 학생들에게, 특히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의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들에게, 그리고 이미 충분히 지친 너희들에게, "그래도 괜찮아. 애들아, 지금, 너희들 충분히 괜찮아."

기본, 그리고 방향

2017 년 10 월 16 일 한대신문 수록

요즘 학교와 정부 모두, 취업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육은, 혹독한 입시 경쟁을 거쳐 대학에 와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강조한다. 잘 먹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교육은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답은 줄 수 없을지라도 고민은 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학생들을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가르치고 있는 나조차도 학창시절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고 관심을 가지라고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상하지 않은가?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배운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사회의 권력구조와 달라야 한다. 현실은 슬프게도, 학교에서조차 이 “사회의 논리”인 권력과 서열, 정치 논리, 줄세우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강요된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인다. 학교 공동체에 소속된 이들이 학교의 교육 및 운영 철학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

캠퍼스를 최소한 4년 이상 거닐고 다녀도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 학교에 발을 딛고 있는 모두는, 누군가가 세운 기준을 따라, 끝없이 달리고, 줄세우기를 한 후에 등수가 매겨진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명해 달라는 사람도 없다. 앞서 말한 이 “사회의 논리”는 지치고, 넘어지고, 뒤쳐진 사람을 더 빼앗고, 더 기회를 박탈하고, 더 비하하여 무능력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그 무리에서 배제하려 한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그 무리를 더 강하고 탁월하게 만든다고 여기고 그것을 당연한 가정이라고 말한다. ‘성과’와 ‘결과’만을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문제가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친 사람이 있으면, 뒤쳐진 사람이 있으면, 왜 그런지 돌아보자. 공부를 왜 하는지, 학문에 정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켜 보자.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학교 운영, 학사 운영, 행정 운영, 학생 지도를 포함하여 학생들 사이의 캠퍼스 생활과 교수-교직원-학생들 사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적용해 보는 기본으로 돌아가보자. 보다 더 깊이 고민해 볼 것은,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은 진짜 스승인가?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은 진짜 제자인가?
 어쩌면 우리는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그것을 건들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대학이 우리 사회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있다. 대학
 마저 기본과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사회에 이것에 관심을 가질 공동체는 없다.
 '먹고 살기'와 '생존의 법칙'을 논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고 그것이 어느 '길' 위에 있느냐는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너희를 향한 소망과 축복

2019 년 1 월 2 일 한대신문 수록

사랑하고 아끼는 너희들을 향한 소망과 축복을 몇 가지 적어본다.

먼저, 비전과 꿈을 가지기를 소망한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어도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길 소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너희의 소명과 정체성을 알기를 기대한다.

늘 건강하기를 소망한다. 이미 충분히 자란 너희들이지만, 난 그래도 말하고 싶다. 밥 잘 챙겨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 몸은 단순히 “내 것”이 아니란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이들의 좋은 선생님과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또한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준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은 일생을 통틀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

지혜롭기를 소망한다. 바르고 밝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게 된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 돈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할 뿐이지 이것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아니다.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조금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는, 그날 하루만 잘 견디고 버티기를 소망한다. '오늘'만 살아내도 충분하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만 살아내기 바란다. 그러면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자. 너무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기 바란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다.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누군가가 만약 있다면, 그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 반드시 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 얻기를 소망한다. 땀 흘려 얻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며 그렇게 얻은 것은 언제나 쉽게 잃어버린다.

너희의 진로와 직업에 관해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거라. 특히 공부를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부를 계속하게 될 것인데, 이때 공부하는 요령을 배우려 하지 말고 기본과 기초부터 잘 다지면서 하기 바란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더 많이, 더 잘 하게 된다. 내가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다.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자. 너희들 이름을 부르는 것, 너희들 얼굴을 떠올리는 것, 너희들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기쁜 이들이 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이들이 있다.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 이들이 있다. 바로 부모님이다.

마지막으로, 죽는 날은 아무도 모르니 언제나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기를
소망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이 더 소중하고 더 값지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아낌없이 들이 쉬며 마감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너희들에게.